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관리합니다."

입학전 입학관리교수제도
전공교육, 진로지도, 대학생활 상담

재 학 담임교수제도
학생별 학업, 대학생활, 진로 설정 및 설계 등 관리

취 업 취업관리 교수 및 취업지원관 제도
1:1 맞춤형 취업지원

입학안내

T. 042-520-1885, 042-520-5000 | enter.pcu.ac.kr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카카오톡 입학상담
배재대학교 입학상담

Instagram
paichai_1885

Youtube
라온배재

Facebook
배재대학교 입학팀

박물관 온라인 서비스

박물관 홈페이지 http://appenzeller.pcu.ac.kr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모바일 전시해설 | VR전시관람

오시는 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도보 5분
버 스 서소문정류장 하차 도보 10분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학교법인 배재학당 | 배재대학교 | 배재고등학교 | 배재중학교 | 배재유치원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T. 02-319-5578

배재학당역사박물관
APPENZELLER/NOBLE MEMORIAL MUSEUM

이용안내

관람시간 매주 화~토 10:00~17:00 (입장마감 16:30)
관 람 료 무료
휴 관 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6월 8일)

관람시 유의사항

- 전시실 내 플래시 · 삼각대 이용 및 촬영은 금지합니다.
-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안내견 제외) 출입은 금지합니다.
- 본 건물은 서울특별시 기념물(1916년 준공)로 지정된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건물 시설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층별안내

- **3F** · 세미나실 · 회의실
- **2F** · 상설전시실2 · 기획전시실2 · 화장실
- **1F** · 상설전시실1 · 기획전시실1 · 교실체험
- **B1F** · 관장실 · 학예연구실

MUSEUM HISTORY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신문화의 요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학당은 1885년 미국인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Henry Gerhart Appenzeller, 1858~1902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고종황제는 1887년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배재학당培材學堂이란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2008년 7월 24일 배재학당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배재학당 동관서울특별시 기념물(1916년 준공)은 1916년 준공된 유서 깊은 근대 건축물로, 아펜젤러가 전인 교육을 실천했던 공간이자 수많은 근대 지식인들을 배출한 신교육의 발상지요, 신문화의 요람입니다.

근대 교육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소장품들과 함께,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체험 교실 등을 갖춘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교육·종교·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근대사를 새롭게 조명할 자료와 담론이 모여드는 공간이자, 동시대와 호흡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습니다.





배재학당 교실체험

1930년대 배재학당의 교실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당시 사용했던 석칠판石漆板과 책걸상 등을 통해 근대 교실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통해 120여 년 전 펼쳐졌던 아펜젤러의 전인 교육과 배재학당의 앞선 교육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F → EXHIBITION

배재학당의 태동과 배재의 정신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배재학당의 시작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인재를 길러낸 배재의 교육 이념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고종에게 하사받은 배재학당 현판, 유길준의 친필서명이 담긴 서유견문, 130여 년 전 학생들이 직접 인쇄하고 사용했던 교과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근대 학생회였던 배재학당의 협성회와 이를 토대로 한 독립협회의 탄생,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과정 등을 통해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배재학당의 활약을 소개합니다.



서유견문

고종황제께서 하사하신 배재학당 현판





명예의 전당

이승만, 주시경, 나도향, 김소월을 비롯한 배재 체육인들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배재인들을 소개합니다.



주시경 친필 이력서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국가등록문화유산>



배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 최초의 학칙, 교지 <배재>와 학보, 배재학당의 우수한 교사진과 세부 교육과정 등을 소개합니다. 배재중·고등학교와 배재대학교로 이어지며 188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배재학당의 밝은 미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F → EXHIBITION

배재학당의 설립자, 선교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1858~1902 의 선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배재학당,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 기독교와 교육에 헌신한 그 자녀들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펜젤러의 친필 일기와 그가 남긴 1900년대 초 한국 사진들은 외국 선교사의 눈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입니다.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가 남긴 친필 일기



헨리 다지 아펜젤러와 루스 노블 아펜젤러의 일생

아버지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 배재학당의 교장이 된 헨리 다지 아펜젤러Henry Dodge Appenzeller, 1889~1953와 그의 아내 루스 노블 아펜젤러의 일대기를 통해 그들의 한국 사랑과 교육과 선교에 대한 헌신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헨리 다지 아펜젤러가 쓰던 책상, 타자기, 피아노 및 거주 허가증, 자동차 면허증 등 당시 선교사들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품들도 함께 전시합니다.

헨리 다지 아펜젤러가 쓰던 책상



배재학당 피아노 <국가등록문화유산>

